

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¹⁾

작성자: 김영란(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·저출산연구센터 연구위원)

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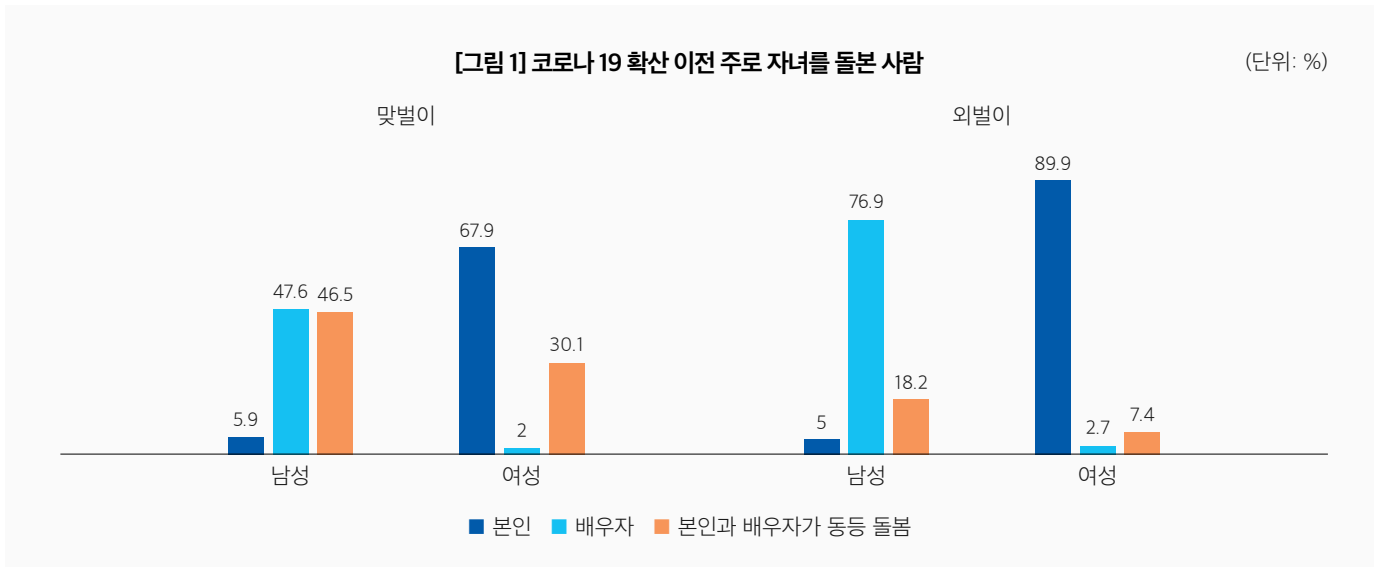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확산 이후 긴급돌봄을 이용한 비율이 영유아 46.9%, 초등학생 15%이며, 미이용 이유로 '자녀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불안해서'가 영유아 56.0%, 초등학생 41.8%임
-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에서 여성의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음. 또한 맞벌이 여성의 67.9%와 외벌이 여성의 89.9%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에 '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은 본인'이라고 응답하였음
-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금근로자 중 12.9%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고, '사용하고 싶었으나 업무공백, 회사사정 등 눈치가 보여서 미신청'한 경우가 34.5%임. 돌봄을 위한 연차 사용 및 기타 자녀돌봄제도(재택근무, 단축근로, 시차출퇴근, 무급휴직 등) 사용률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음
-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는 미취학 영유아가 6.2%(하루 평균 2시간 32분), 초등학생이 38.3%(하루 평균 3시간 54분), 중·고등학생이 72.3%(하루 평균 5시간 31분)임
-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성평등한 상호 돌봄문화 조성, 안전한 긴급돌봄 체계 마련,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, 우울감 및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 마련 등을 제언함

1)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야기된 여성의 고용·소득 위기, 가족생활 변화 및 가정폭력 현황을 파악하고,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「코로나19 관련 여성·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」를 4차례 개최함. 본 호는 “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”를 주제로 개최된 「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·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」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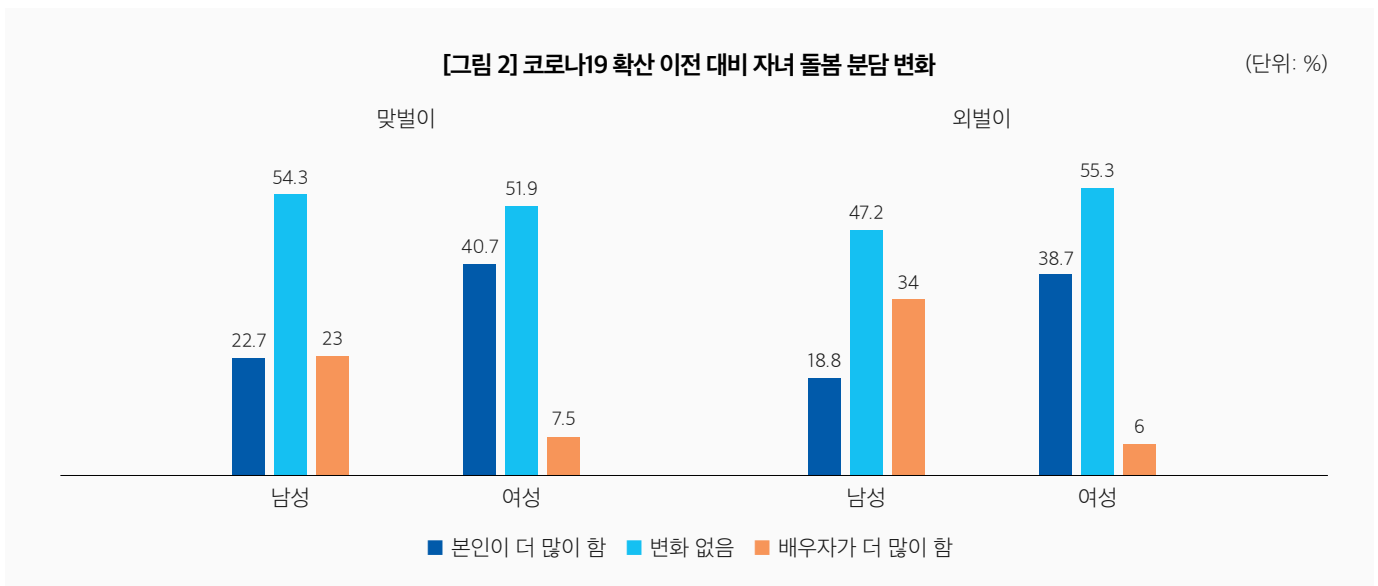
㉠ 코로나19와 가족 내 돌봄과 관계의 변화²⁾

-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에서 여성의 자녀돌봄이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음

- 맞벌이 여성의 67.9%와 외벌이 여성의 89.9%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에 ‘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은 본인’이라고 응답하였음. 맞벌이 남성은 5.9%가 본인이 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응답하였음



-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벌이 여성의 40.7%와 외벌이 여성 38.7%가 ‘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돌봄을 더 부담하였다’고 응답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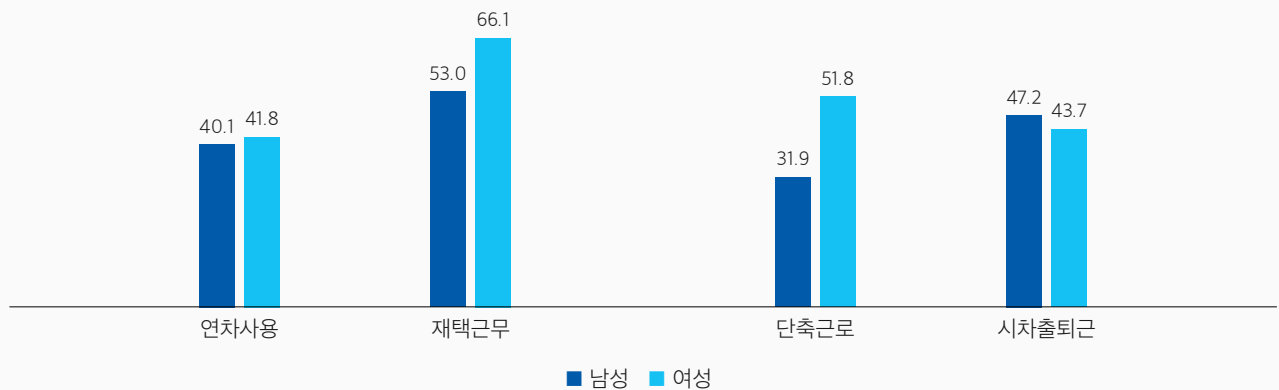


2) 이 부분은 김영란(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·저출산연구센터 연구위원)의 “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정책 의제” 발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임(조사시기: 2020.6.1~2020.6.7, 조사대상: 전국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일반국민 1,500명)

-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녀 돌봄을 위해 각종 휴가 및 유연근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변경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음
 -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돌봄을 위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여성 41.8%, 남성 40.1%임
 - 재택근무, 단축근로,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제도가 직장에 있는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
 - 재택근무 사용은 여성 66.1%, 남성 53.0%, 단축근로 활용은 여성 51.8%, 남성 31.9%. 시차출퇴근 활용은 여성 43.7%, 남성 47.2%임

[그림 3] 연차 및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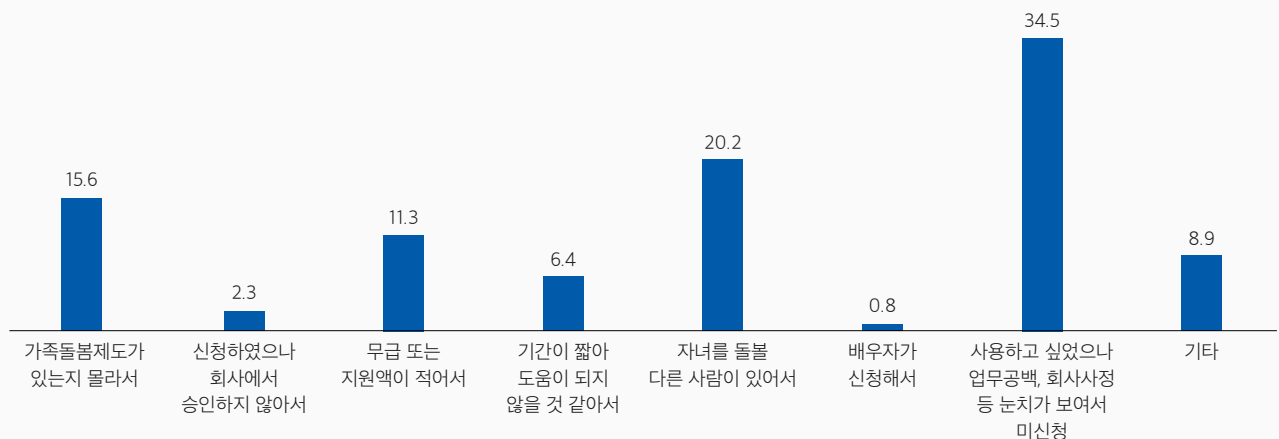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휴직한 경우는 여성 24.6%, 남성 12.1%이며,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역시 여성 14.5%, 남성 11.4%가 사용하였음
 -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‘사용하고 싶었으나 업무공백, 회사사정 등 눈치가 보여서 미신청’ 34.5%, ‘자녀를 돌볼 다른 사람이 있어서’ 20.2%, ‘가족돌봄제도가 있는지 몰라서’ 15.6%, ‘무급 또는 지원액이 적어서’ 11.3% 순임

[그림 4] 가족돌봄휴가 미사용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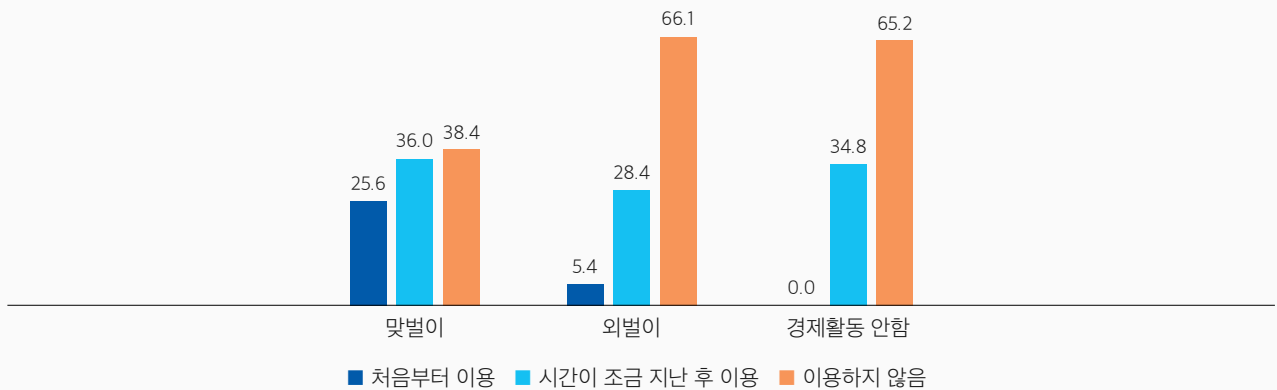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취학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긴급돌봄 이용은 46.9%, 초등 자녀가 있는 가구의 긴급돌봄 이용은 15%로 나타났으며,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긴급돌봄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
- (미취학 영유아 가구)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부터 긴급돌봄을 이용한 가구는 14.7%이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부터 이용한 가구는 32.2%로 미취학 영유아 가구의 46.9%가 긴급돌봄을 이용함
- 맞벌이 가구는 61.6%(처음부터 이용 25.6%,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이용 36.0%)가 긴급돌봄을 이용하였음

[그림 5] 미취학 자녀 긴급돌봄 이용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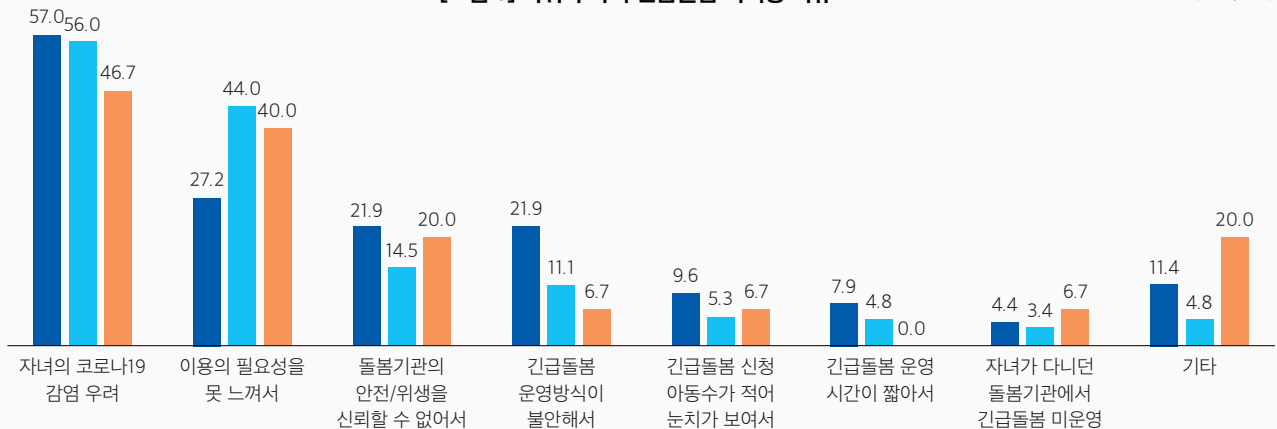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미이용 이유로 맞벌이 가구는 ‘감염우려’가 상대적으로 높고, ‘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’, ‘돌봄기관의 안전·위생을 신뢰할 수 없어서’, ‘긴급돌봄 운영방식이 불안해서’등도 상당수임. 외벌이 가구는 ‘감염우려’와 ‘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’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음
- 10% 미만이라는 하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‘긴급돌봄 신청 아동 수가 적어 눈치가 보여서’, ‘긴급돌봄 운영 시간이 짧아서’, ‘자녀가 다니던 기관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지 않아서’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응답 사례도 있음

[그림 6] 미취학 자녀 긴급돌봄 미이용 이유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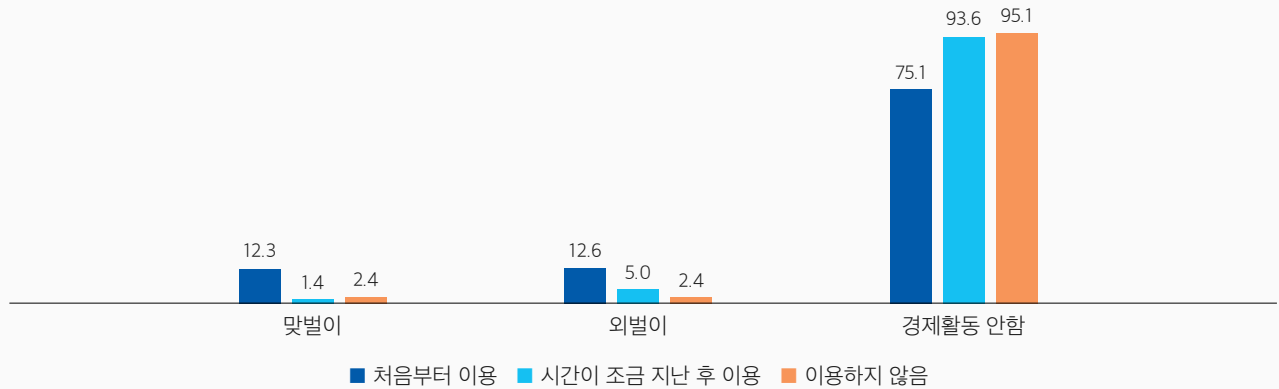


- (초등학생 아동가구)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부터 긴급돌봄을 이용한 가구는 6.6%이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부터 이용한 가구는 8.4%임

- 맞벌이 가구는 24.9%(처음부터 이용 12.3%,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이용 12.6%)가 긴급돌봄을 이용하였음

[그림 7] 초등학생 자녀 긴급돌봄 이용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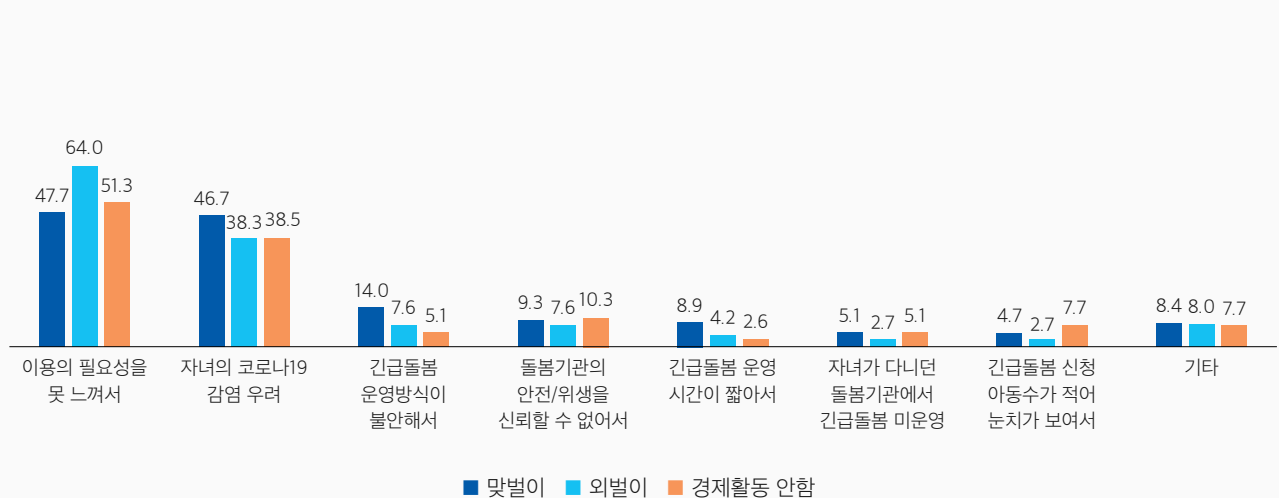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- 미이용 이유로 맞벌이 가구는 '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'와 '감염우려'가 상대적으로 높고, 외벌이 가구는 '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'가 64.0% 수준임
- 초등 자녀 역시 맞벌이 가구의 경우 '긴급돌봄 운영 시간이 짧아서', '긴급돌봄 신청 아동수가 적어 눈치가 보여서', '자녀가 다니던 기관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지 않아서'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응답 사례도 있음

[그림 8] 초등학생 자녀 긴급돌봄 미이용 이유

(단위: %)



- 코로나19 시기에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사례가 75.1%이지만 성인 없이 아동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도 여전히 상당수임

- 가족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.1%이며 연령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

※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 증가 : 30대 이하 69.7%, 40대 77.7%, 50대 이상 80.2%.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1.0%, 300-499만원 미만 74.1%, 500-699만원 미만 76.4%, 700만원 이상 82.1%

- 미취학 아동 자녀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.2%이며 맞벌이 8.8%, 외벌이 3.5%임(평균시간 맞벌이 2시간 46분, 외벌이 2시간 14분)

-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8.3%이며 맞벌이 50.5%, 외벌이 26.6%임(평균시간 맞벌이 4시간 45분, 외벌이 2시간 23분)

- 응답자의 46.7%는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는데,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

※ 가구소득 감소 : 30대 이하 39.6%, 40대 49.2%, 50대 이상 57.1%.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8.8%, 300-499만원 미만 48.9%, 500-699만원 미만 40.4%, 700만원 이상 32.1%

- 응답자의 37.4%가 가족원 간 갈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,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커졌다는 응답자도 59.3% 수준임

- 가족 간 갈등 경험은 여성 40.6%, 남성 32.7%임

-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커졌는지 여부에 대해 여성 66.0%, 남성 49.3%가 그렇다고 응답함. 51.1%가 자녀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하여 커졌다고 응답하였고, 57.9%가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하여 커졌다고 응답하였음

구분	내용
성평등한 상호 돌봄문화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·문화적 개선 • 직접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제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족돌봄휴가 휴가 기간 확대 및 유급 전환 검토 필요 - 감염병 등 긴급 상황 시 이용 가족 범위 확대 등 개선 필요 • 재택근무 활성화 및 재택근무 여건 지원 등 고용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 필요
안전한 긴급돌봄체계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 확대 및 긴급돌봄 적극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임. 지역사회 내 긴급상황 발생 시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으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지원 • 돌봄 공백이 '새로운 위험'이 아니고 '이미 존재하는 위험'인 가족들에 대한 정책 개입 우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돌봄 공백 영향이 보다 큰 가족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하며 정부와 기관이 이러한 가족들을 발굴해 낼 수 있어야 함 • 향후 유사상황 발생 시 개별 가족 대상으로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지원기관 필요
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격의 기준을 완화하고 총이용시간을 확대하여 어린이집, 유치원 휴원 및 초등학교 휴교로 인한 양육 공백 지원 필요
우울감 및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족갈등, 코로나 블루 등 다양한 심리·정서문제에 대한 지원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불안·우울문제, 잠재되어 있는 가족갈등의 표출,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배제와 낙인으로 인한 트라우마,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심리문제에 대한 적극적 상담 필요
비대면가족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스템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향후 가족 사업에서 비대면 방식의 활동 프로그램이나 상담 운영에 대한 검토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대면 운영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상담 운영 가이드라인 및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 개발 필요

3) 이 부분은 김영란(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·저출산연구센터 연구위원)의 발표와 배은경(서울대학교 교수), 류연규(서울신학대학교 교수), 진미정(서울대학교 교수), 이원재(LAB2050 대표), 박경은(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혁신본부장), 강주현(서대문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)의 토론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임